

새정치, 비례대표 선정도 '시끌'

시행 세칙 무시, 면접·경선 없이 선정...반발 확산

전남도당 "집행위에 관한 위임...절차상 하자 없어"

기초단체장 경선후보 선출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이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정에서도 문제를 일으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지역정치권에는 전남도당이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정을 위한 면접과 경선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례대표추천위원회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민주계 위원 7명과 새정치계 위원 2명만이 회의를 열고 후보를 결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나눠먹기를 위한 밀실·야합 공천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예초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은 비례대표후보 경선 방법으로 ▲공문조사 100% ▲여론조사 100% ▲관리당원 투표 100%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지침을 내

렸다. 하지만 비례대표 공모자 A씨는 "10일 저녁 전남도당회의실에서 비례대표추천위원회 및 위원 15명 중 위원장도 없이 구민주계 7명과 새정치계 2명의 위원만 회의를 열었다"며 "타지역 시·도당과 다르게 면접절차도 없이 서류만 보고 후보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면접도 경선도 없이 6명의 후보를 추천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새정치연합은 이번 공천에서 여성·장애인·다문화·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고 약속했지만, 젊고 참신한 후보들을 배제하고 70대의 후보를 6명 안에 2명을 배정하는 등 나눠먹기 공천을 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에 정치신인 및 사회적 약자의 자리

는 없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김철근 비례대표추천위원장도 "위원장도 없고 면접도 경선도 없이 후보를 선정한 황당무계한 사건"이라며 "안정권인 4번까지 민주계가 1.2.4.4번을 차지하고 3번은 중앙당에서 혁신공천후보자로 지명한 인사를 추천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결정은 현 기득권 세력의 나눠먹기식 배경이다"며 "중앙당 시행세칙을 따르지 않은 무법천지 상태에서 자행된 이번 결정은 반드시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남도당 관계자는 "비례대표 추천위원 30%만 동의해주면 집행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이 절차를 따라 집행위원회가 광역의원 비례 후보자를 결정한 것"이라며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도 시의원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은 박모·서모 씨등 2명의 여성을 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1번과 2번으로 최고위원회에 추천했다. 남성인 김모 후보는 3번으로 추천했다.

박 후보는 옛 새정치연합 계이며, 서 후보는 장애인 몫으로 추천됐고, 김 후보는 광주시당 당직자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력인사가 특정인을 챙겨 최고위원회에 추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관계자는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후보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이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보조금 부당 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확정해 검증절차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김한길·안철수 17일 광주 온다

5·18 행사 참석...전략공천 잡음 민심 달래기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오는 17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대표의 광주 방문은 광주시장 후보로 윤장현 예비후보를 전략공천한 후 첫 방문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관계자는 14일 "두 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행사기간을 맞아 광주를 방문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며 "다만, 그 내용을 채우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광주 전략공천 문제)로 잘못하면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광주를 갈 것"이라며 "하지만, 두 대표는 그냥 단순하게 가는 것은 안 된다. 생각하는 광주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놓고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한길 안철수

이어 5·18 기념식 행사 참석 문제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국가 공식 행사인데 공당 대표로서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대표가 생각하는 듯 하다"며 "유족들의 행사인 추모제에 참석하고 공식 기념식도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ipark@

전남 AI 피해 400억원

84곳 215만 마리 살처분

전남도가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N8)로 인해 지금까지 피해 액수가 4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 초 해남 송지면에서 최초 발생한 후 살처분·임식 지연·상품까지 하락 등에 대한 보상과 방역초소 운영 등 방역비를 합친 것으로, 간접 피해는 제외된 수치다.

전남지역에선 올해 4개 시·군에서 6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7개 시군 농가 84곳의 닭·오리 215만 마리가 살처분·매몰된 바 있다.

도가 오는 23일까지 지역 내 종오리농장 전체에 대해 고병원성 AI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해 피해 규모는 유동적이다. 고병원성 AI가 진정 추세에 있으나 이달 내 야생철새 회귀 전까지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밀검사 대상은 감염에 취약한 종오리농장 19개소 141동이다. 방역인력으로 인한 수평 전파 우려를 없애기 위해 시군·축산위생사업소·방역지원본부 57명을 일시에 동원해 15일 시료 채취에 나설 예정이다. 1차 검사는 축산위생사업소에서 확진검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다.

닭은 간이키트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있을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전국적으로는 7개 시·도 19개 시·군에서 29건이 발생해 농가 515곳의 닭·오리 1438여만 마리가 살처분돼 보상과 방역조치로 3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미안합니다" 14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 집회'현장을 방문한 이토 나리히코 일본 중앙대학 명예교수가 할머니들에게 꽃을 선물하고 있다. /*연향뉴스

광주시, 맥쿼리에 재정지원 중단 통보

"승소하면 운영권 회수"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인 맥쿼리에 대해 재정지원금 중지 처분을 내렸다.

광주시는 14일 "민간투자법과 지방재정법, 광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자에 대해 재정지원금 중지 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전문가 자문 등 검토를 거쳐 지

난 2월 24일 보조금(재정지원금) 중지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고 지난 3월 11일 청문절차를 거쳐 중지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맥쿼리측은 중지처분의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광주시 재정지원 없이 통행료 수입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광주시의 이번 조치는 맥쿼리측이 지난 2000년 자기자본금 543억원으로 제2순환도로의 운영권을 따낸 뒤 10여년동안 광주 시로부터 재정 보전금으로만 1393억원을

받아 챙겨놓고도 회사 자본구조를 바꿔 오히려 2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남겨놓는 등의 비상식적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맥쿼리측이 광주교보 향소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 상고로 계류중인 '(자본구조 등)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에서 이길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면서 "승소하면 관리운영권을 공익처분 조항을 내걸어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

"안, 돌 맞더라도 광주 설득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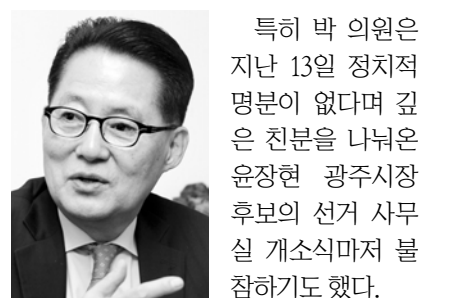
박지원 의원, 연일 공세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에 대한 박지원 의원<사진>의 '날선 공세'가 예시롭지 않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박 의원의 날선 목소리에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안 대표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마저 드러나고 있다.

박 의원은 14일 방송 인터뷰에서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과 관련 "안철수 대표의 돌발행동을 맞더라도 광주를 찾아 설득하고 양해도 구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각종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안 대표가 호가호위하는 주변 인사를 정리해라(13일)", "호남이 붕어나(12일)", "안철수 대표가 DJ가 아니다(8일)" 등 호남 민심을 전하며, 비판의 강도를 높여왔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13일 정치적 명분이 없다며 깊은 친분을 나눈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의 선거 사무실 개소식마저 불참하기도 했다.

박 의원의 날선 공세에는 안철수 대표가 호남을 너무 쉽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나타난 안 대표의 소통 부족에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도부에 할 말은 하는 박지원 의원의 행보는 지역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말 없이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을 받아들이는 광주 국회의원과도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광주시장 27일·전남지사 28일 TV토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6·4 지방선거의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선거 후보자 TV토론회를 22~29일 각각 25차례와 26차례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후보자 TV 토론회는 각급 선거방송위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 TV토론회 14차례와 시·도교육감선거 후보자 TV토론회 8차례는 KBS, MBC를 통해 생중계되고, 나머지는 녹화 중계 방송된다. 광주시장은 오는 27일, 전남지사는 28

일 후보자 TV토론이 방송된다. 전남도 교육감은 오는 25일, 광주시교육감은 29일 각각 후보자 TV토론이 전파를 탄다.

후보자 TV 토론회는 각급 선거방송위가 시·도지사 선거, 시·도교육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회 의원 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책 검증에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총 422차례 열린다. /*박지경기자 jkipark@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제 131226-중-52297호

노안시력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 Kamm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트

신세계백화점 / 밝은광주안과

광주새마을금고 신입직원 모집공고

저희 광주새마을금고에서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새마을금고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신입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구분: 계약직 신규 직원
2. 모집인원: 0명
3. 응시자격: - 새마을금고 인사 규정에 정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응시방법:
 - 기간: 2014년 5월 14일 ~ 2014년 5월 16일(3일간)
 - 접수: 방문접수(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제출서류:
 - 이력서 1부(사진첨부: 최근3개월이내)
 - 자기소개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6. 기타 사항:
 - 근무조건: 주5일 근무제, 공휴일 휴무
 - 급여 및 복리후생은 당 금고 기준에 준함
7.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로246번길 3(양동) 광주새마을금고
 - 기타문의 사항 TEL 0621361-3515 ~ 7(총무과)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품암지점